

인제의 대표일꾼 인제는 최상기입니다

1
최상기

인제군수 후보

더불어
민주당

"니 돈 쓰는 것도 아니면서..."

인제 곳곳을 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제 돈 쓰는 게 아니지요.

막대한 예산을 끌어오는 것은 군수의 능력이지만,
가장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은 군수의 의무입니다.

영농자재 반값공급 / 비법정 도로 매입

인제군 LPG 배관망 사업 / 상수도 사업(덕산·부평/서화·천도)

35개 주차장 설치 / 1,000원 버스·택시

채워드림카드 발행, 가맹점 수수료 전액지원/ 배달앱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1% 지원기금 / 대학생 장학금 500만원 확대

인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 것.
이것이 최상기가
예산을 쓰는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군수의 철학과 비전을 보려면,
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면,
잘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십시오.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따라가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최상기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답이 보입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완성은 지금부터입니다

인제는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다.

생활 인프라가 늘었고, 관광과 지역경제의 기반도 다져졌다.

그 변화를 이끌어온 최상기 군수를 만나 인제의 변화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

**4년 전, 이번이 마지막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바꾸게 된 점 군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군민들께서 재출마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고심 끝에, 다시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을 바꾼 것,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제는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변화는 인제의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생활 인프라와 관광 기반을 쌓아왔고,
농민과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는 정책도 이어왔습니다.
KTX 개통과 역세권 개발,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조성 같은 사업
들도 이제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제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가는 곳'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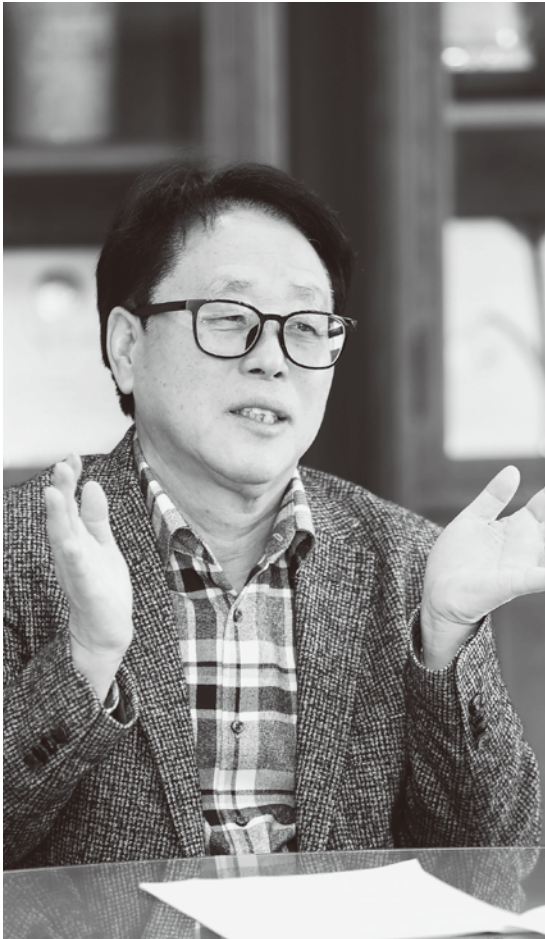
춘천-속초 KTX 개통을 앞두고 '빨대효과' 우려가 있습니다.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44·46번 국도 주변 상권이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인제가 이미 겪은 일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 개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소비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자족 도시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철도는 인제에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정주 인구 3만명 압축도시'를 제시
하셨습니다. 이 구상도 그 준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까?**

인제읍과 원통은 생활권이 나뉜 채 따로 성장해 왔습니다.
홀어지면 경제 규모가 커지지 않습니다. 인제읍·덕산리·원통을
묶어 하나의 거대한 도심으로 통합할 것입니다. 덕산 주거
단지에 1,529세대를 공급하고, 원통리에는 16만 평 규모의
복합타운을 조성합니다. KTX에서 내린 사람들이 이 3만명 규모의
압축도시를 중심으로 먹고, 자고, 소비하게 만들 것입니다.



관광 전략도 '정원도시'로 완전히 리브랜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순천만 같은 국가정원을 인제에도 만들겠다는 건가요?

순천은 박람회로 국가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인제는 다릅니다. 자연 자체가 정원입니다. 소양호, 가을꽃축제, 자작나무숲, 백담사. 이 자원들을 하나로 묶고, 용대 지방정원에서 시작해 마을정원화로 확장합니다. 풍경이 돈이 되고, 머무는 시간이 소득이 됩니다. 이것이 정원도시 인제입니다.

종합하면 교통, 도시, 관광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 같은데...

교통, 도시, 관광 세 가지가 따로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동시에 맞물려야 합니다. KTX로 문이 열리고, 인제읍·덕산리·원통이 하나의 도시로 합쳐지고, 인제 전체가 정원도시로 완성되면 사람이 오고, 머물고, 돈을 씁니다. 각각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가벼운 질문입니다.

인제읍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가 사용가능하더군요. 다른 지역 읍내에서는 거의 안되는데..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면(面) 지역만 일부 풀어줬습니다.

이 기준 때문에 처음에는 인제읍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를 네 번, 다섯 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군인도 많고, 이게 안 되면 군민들이 장을 보러 속초나 춘천으로 나가게 된다.

인제만 예외로 해달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니시니 건강은 어떠십니까?

세종, 여의도 그리고 인제 곳곳을 열심히 돌아다니니까 건강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적당한 긴장과 주어진 일이 몸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최상기의 인제, 이렇게 달라

01 “군민 소득이 늘었습니다”

인제 군민 1인당 생산액 | 5,737만원 · 강원도 2위입니다. (통계청 최신 발표 기준)
영농자재 반값 공급 | 4,300여 농가에 591억원, 전국 최초로 인제가 시작했습니다.
채워드림카드 | 누적 2,639억원 발행, 가맹점 수수료 군이 전액 부담.
인제음 하나로마트사용 가능, 최대 15% 할인합니다.
소상공인 융자지원 | 1% 이율, 배달앱 수수료 지원, 가맹업체 수수료 전액 지원
대학생 장학금 | 3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스포츠 경제 | 2025년 한 해만 63개 대회·49개 전지훈련팀이 왔습니다.

03 “인제의 생활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곳 | 합계출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최대 700만원
비법정 도로 매입 | 123억원을 투입
원통과 기린에 수영장·영화관·헬스장
서화에는 평화체육관을 세웠습니다.
남면과 상남면에는 복합문화센터를
인제읍에 기적의도서관과 보건소 산
65세 어르신 버스 무료, 누구나 1,000

02 “인제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춘천-속초 KTX | 인제원통역·백담역이 들어서며 역세권 개발사업에 약 1조원이
투입됩니다. 인제IC에서 KTX 인제원통역까지 2,085억원 투입, 착공. 더 가깝고 곧게
연결됩니다.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 총사업비 600억원 집중 투자, 사계절 랜드마크로 완성중입니다.
인제기을꽃축제는 누적 방문객 110만명(2025 전국 가을축제 2위)을 돌파했습니다.
소양호사계절 관광지, 자작나무숲과 갯골자연휴양림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도 완성되고 있습니다.
서화면의 비둘기개 광장, 인북천 물빛테마공원, 물결보도교 등이
속속 완공되며 서화의 풍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04 “청년도, 군인도,

전국 농어촌 79개 군 중에서 청년 인구 비
2025년 청년 연령을 49세까지 확대해 35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 최대 2년을
청년보금자리 주택을 신월리에 지었고,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남에 군인·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300호

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을 1.27명 전국 9위입니다.
의 산모지원정책이 있습니다.
해 이웃 간 길 분쟁을 미리 막았습니다.
을 만들고,
완공했습니다.
부인과를 만들었습니다.
원으로 이동합니다.

05 “인제의 살림, 밖에서 채웠습니다”

2022년~2025년, 인제군예산과 별개로
중앙정부와 강원도에서 7,874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1,501억원 | 2023년 1,940억원
2024년 2,118억원 | 2025년 2,315억원
역세권 개발에 국비 1,922억원,
도비 376억원을 확보했고,
서화 평화지역 발전사업 2,078억원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인제군 예산 7,419억원
강원도 18개 시·군 중 6위입니다.

모두 인제의 기둥입니다”

율이 가장 높습니다(23년 기준 25.1%)
~ 49세도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합니다.
용대리에도 짓고 있습니다.
고, 청년 창업자에게는
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더 채웁니다”



만들 건,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더 채웁니다

01

만든 시설을 제대로 쓰겠습니다

시설은 충분합니다.
이제 내용을 채울 차례입니다.

도서관과 체육센터는 더 많이 열고,
더 많이 쓰게 하겠습니다.

명절 당일만 쉬고, 정기 휴관을 줄이고
가능한 시설은 문을 열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센터와 도서관,
각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AI 교육을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년과 군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늘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더 많이 이용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건물은
사람 때문에 존재합니다.

02

인제 전체를 하나의 정원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순천은 박람회로 국가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인제는 자연 그 자체가 정원입니다.

소양호 사계절 관광지, 가을꽃축제,
자작나무숲, 백담사...
이미 좋은 자원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자원들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용대 지방정원에서 시작합니다.
마을 정원화로 일상에 스며들고,
남에서 북으로 67km 정원길로 연결합니다.

KTX로 수도권 1시간.
사람이 모이고, 관광객이 머무는 정원도시 인제.
풍경이 돈이 되고, 머무는 시간이 소득이 됩니다.



03

지역경제를 더 돌게 하겠습니다

인제에서 번 돈이 인제에서 쓰이게 하겠습니다.
'채워드림카드'로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고,
관광객과 군 장병, 군민이 쓰는 돈이
골목골목 상권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2028 강원도민체전이 열립니다.
사계절 전국 대회를 유치해
선수들이 인제에서 먹고 자고 쓰게 하겠습니다.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십시오.
영농자재 반값 공급 대상을 넓히고
농업인 수당을 12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태양광 햇빛소득, 인제군이 먼저 나섭니다.
읍면마다 인제군 유흥지와
군부대 이전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수익을 해당 읍면 군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인제형 농어촌기본소득 모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04

군민과 군인가족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일상은 인제 안에서 충분해야 합니다.

가스통을 없애겠습니다.
LPG 배관망을 마을까지 연결해
난방비를 낮추겠습니다.

버스 요금을 없애겠습니다.
어르신만이 아니라, 인제 군민 모두에게.

아픈데 데려다줄 사람도, 차도 없다면
병원에 함께 가드립니다.
어르신과 영유아를 키우는 군인가족,
군민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를 시작합니다.

12사단 의무대대가 의원급 병원으로
새로 지어집니다.
연면적 2,613㎡, 2027년 착공.
군인과 군민이 함께 이용합니다.
군부대와 협의해 소아과를 포함한 진료 과목을
늘리겠습니다.

군인 가족 한분 한분이 인제의 자원입니다.
군인 배우자 취업 매칭과 경력 지원,
직접 챙기겠습니다.



KTIX가 열립니다 도시는 하나가 됩니다 정원도시 인제가 시작됩니다

KTIX로 도시가 바뀝니다

인제IC에서 KTIX 인제원통역까지 도로를 개선합니다.
KTIX역까지 더 빠르고 편하게 갑니다.
KTIX로 서울까지 1시간.
수도권이 더 가까워집니다.



3만명이 사는 콤팩트 시티

인제읍-덕산리-원통을 하나로 묶어
사람이 모이고, 관광객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제군 6개 읍면 전체의 성장 엔진이 될 것입니다.

KTIX 개통에 맞춰 세 개의 주거 거점이 동시에 들어섭니다

KTIX 인제원통역 앞에는 은퇴자와 청년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
갈골지구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호,
월하리 군부대 부지에는 청년·은퇴자 복합공동체마을 300세대.
사람이 모이는 도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정원도시 인제

인제군 전체를 정원으로 만듭니다

개별 관광지를 넘어 인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원도시로 재설계합니다.

용대 지방정원·마을 정원화 사업 정원도시의 시작입니다

백담사, 자작나무숲, 소양호 그리고 기린 진동계곡·방태산까지
인제군 전체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정원도시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머무는 관광에는 머무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군이 먼저 짓고 있습니다. 상남면 네이처스테이 힐링센터,
진동·방동 캠핑마을, 남면 빙어호까지 머무는 곳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제가 가진 휴양림과 숙박 자원을 하나로 엮어 정원도시 숙박 네트워크를
만들고, 호텔 등 민간 고급숙박 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도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관광객이 머무는 정원도시 인제
인제 경제의 틀을 바꾸겠습니다.**

1 인제군수 후보 최상기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시간입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함께
중앙이 움직이고, 강원이 달라지는 지금,
인제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KTX도, 콤팩트시티도, 정원도시 인제도
중앙의 뒷받침, 강원도의 실행,
인제군의 주도가 맞물려야 완성됩니다.

잘 세운 기반도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쉽게 무너집니다.
쌓아가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군수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완성은 지금부터입니다.
인제는 최상기입니다.

가리산초·인제중·인제농고 졸업
인제군 기획감사실장
강원도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인제군 부군수
(현)인제군수

사 무 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38
T. 033-461-0111

